

안전하고 즐거운 영유아의 생활 공간을 꿈꾸며

우남희 소장

2013년 말 기준으로 취합된 유아교육·보육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0~5세 취학 전 영유아 중 약 77.3%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는 3~5세 유아의 경우 약 91%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영아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63%에 달하였다. 이처럼 기관 이용률이 높을 뿐 아니라, 2013년에 이루어진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의 생활시간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하루 6~7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환경에 비견할만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지, 모든 영유아들에게 동등한 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2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어린이집 3.69, 유치원 3.79정도로 두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4년, 2009년에 각각 실시된 1차, 2차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조사 시점에 비해 높아져 부모들의 눈을 통해 본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의 질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가에 힘입은 바가 크며, 아동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양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므로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 관리’가 중시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과 발달을 고려할 때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시설·설비 등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측면을 생각할 때, 우선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어야 함은 기본일 것이다. 이곳은 많은 영유아가 공동으로 생활하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실내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의 법령 정비에 따라 실내 공기질 측정, 석면 안전 검사, 놀이시설 안전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예전에 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련법령의 정비나 이에 따른 관리는 엄격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한 환경 관리는 기본이며 앞으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양질의 물리적 환경을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설립 유형이나 규모에 따른 환경의 질적 격차는 아직 남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지닌 만큼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영유아 시기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합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시설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준 마련과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어린이집·유치원이 ‘제2의 가정’이라 할 만큼 환경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유아에게 어린 시절의 가장 많은 기억을 품게 할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영유아가 행복한 꿈을 꾸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흥미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